



문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연주 여행, 저와 함께 떠나시죠?

김민 기자 | 입력 2018-05-16 03:00 | 수정 2018-05-16 03:00

0



14일 서울 종로구 문호아트홀에서 만난 프랑수아프레데리크 기는 “외모도 베토벤(작은 사진) 같다”고 하자 “베토벤의 환생이 아닐까요?”라며 농담을 했다. 그는 베토벤의 모든 피아노곡을 연주,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죠. 악보만 600페이지, 11시간 분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년 10번째 연주를 일본 무사시노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랑수아프레데리크 기(49)는 2008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프랑탕 데 자르(예술의 봄)’ 축제에서 열흘 동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연주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베토벤 세계를 여행해보자는 의도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그즈음 제 삶의 과업인 ‘베토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베토벤의 모든 피아노곡을 연주하고 녹음하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다른 계기는 2006년부터 필리프 조르당과 함께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리코딩이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매년 2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고 있다. 기는 “베토벤을 연주할수록 더 하고 싶기에 평생 끝나지 않을, 음악적 커리어의 핵심”이라고 했다.

기에게 베토벤이 중요한 이유를 묻자 ‘휴머니티’라고 답했다. “위대한 작곡가 중에서도 베토벤은 인류 보편적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지역, 시대가 아닌 인간을 표현해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감동받을 수 있죠.”

주요뉴스

1/3



민주당 ‘씩쓸이’ 막은 한국당 당선인 조은희...

홍준표, 당 대표직 사퇴 “나라 통째로 넘어가...제 잘못”

박지원 “홍준표 대권 욕망, 무서운 분...사퇴 후 전당대회 준비할 것”

‘한국당 재보선 유일 당선자’ 송연석 “국회의원 단디 하겠다”

“존재 이유가...” 野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살 수 있다?

민주당, 2006년 한나라 압승도 뛰어넘어...비교해보니

민주, ‘텃밭’ 제주시 도지사 선거 5연속 패배...왜?



폼페이오 “CVID가 빠졌다고? 어리석은 질문 말라”



검찰,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前대통령에 징역 3년 구형

김정은, 트럼프에 “미국도 대화하고 싶다”...아베, 평양 가나

포토·동영상



“1935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최초로 녹음한 아르투어 슈나벨의 아들 카를 올리히 슈나벨을 통해 베토벤의 모든 음악이 사람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됐죠. 리언 플라يش도 저에게 멘토와 같은 분이었어요.”

프랑스 남서부 페리고르에서 자란 그는 “가을에 버섯 줍는 게 취미”라고 말했다. “트러플이 유명한 페리고르엔 버섯이 많아요. 버섯을 발견하는 순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기분이거든요. 라틴어 학명까지 다 알고 있어 지금도 친지들이 사진을 보내 독버섯 감별을 부탁해 와요.”

17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기는 13번(환상곡풍의 소나타), 4번(대소나타), 22번, 21번(발트슈타인) 소나타를 연주한다. “13번은 월광 소나타의 여동생 격인데, 악장 간 멈춤이 없어 독특하죠. 4번은 35분간 계속되는 아주 깊고 느린 음악이에요. 22번 소나타는 기이하면서 로맨틱하고요. 마지막엔 어려운 소나타를 들어줘 고맙다는 의미의 파워풀한 발트슈타인을 들려드릴 거예요.”

지난해부터 국내 연주를 이어온 기는 한국 관객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2020년까지 한국에서 소나타를 연주하게 돼 영광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세계를 향해하는 저의 배에 함께하시겠어요?”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부동산 HOT ISSUE

신갈vs영등포, 서남부 뉴타운 1위 경쟁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 1  서울구청장 '24대 1' 민주당 압승...한국당 서초 조은희...
- 2  박지원 "홍준표 대권 욕망, 무서운 분...사퇴 후 전당대..."
- 3  "간통죄 없어서 뺑에 처 놓지 못하니..." 아내 내연남에 ...
- 4  [속보] 홍준표, 지방선거 참패 책임 당 대표직 사퇴..."나..."
- 5  한서희 "친구 김기범, 클럽에 뷔 데려와 만나"...김기범 "...